

# GRAPHIC



## Magazine Issue



propaganda



ISSN 1470-7000

# 칠



1호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계간 GRAPHIC #6 MAGAZINE ISSUE 중에서, 칠 진 서면 인터뷰

### Q. 어떻게 잡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잡지를 만들게 된 개인적 동기에 대해)

편집인 3명 모두 같은 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학교 졸업 후 함께 작업실을 열고 부단히 방황 하며, 새롭고 나를 혁신적인 무엇 대한 갈증이 있던 중. 스스로에 대한 걱정도 모자라 하루하루 서울 한국 나아가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던 중, 학창시절에 항상 마음만으로 머물렀던 잡지라는 것을 우리들이 직접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보기 원하는 것 들을 모아 잡지로 만들어보자고 출발하여, 나름대로 이 시대 변비에 이른 대중문화와 예술계에 때늦은 유산균 요구르트가 되리라는 다짐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예술전반에 대한 젊음이 넘치는 종이몽치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정말 넘치는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 Q. 잡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디토리얼 & 디자인 측면에서)

주제와 동떨어지는 듯 연관되는 부록이나 전체 패키지의 구성과 전체적 형태. 그리고 손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 잡지를 단지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 몇 번 들춰봐도 새롭고 재미있거나 혹은 불편한 작은 요소들을 숨겨두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잡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칠진은 산지에서 배양하여 편집진 3명이 직접 포장 하여 판매처까지 운송 하는 산지 직송 시스템으로 믿을 수 있는 신선함을 자랑한다.

### Q. 귀하가 만든(만드는) 잡지의 디자인 폴리시(design policy)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디자인 컨셉 및 주안점)

디자인 폴리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폴리시. 다만 아티스트의 작품을 뺀 나머지 레이아웃을 비롯한 디자인의 대부분을 우리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최대한 우리가 100% 채집하거나 만들어내자는 걸 원칙이라면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미지의 범람 속에 정직하게 살아남는 방법으로 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포켓용 철로 발매된 3호에서야 제대로 이뤄졌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해도 앞으로 그렇게 주욱 하나갈 계획.

### Q. 잡지를 만들면서 경험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매 호가 출생하는 순간. 출산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낀다. 재정적인 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시작했지만 수급 날 봉투가 두둑할 때, 누군가 꾸준히 애독해주고 있음을 느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건너건너 우리를 알고 연락해주는 사람 들을 발견했을 때.

### Q. 잡지를 만들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는?(취재원이든 스텝이든)

사실 매 호에 뮤즈가 있다. 각 잡지의 제작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고 매 호 화보부분에 남자모델을 해주었던 친구들. 그간 세 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 주었다. 특히 스페인에서 온 사진작가 Mauro와 미국에서 한국 아트씬을 연구하러 온 Benjamin과의 만남은, 그 둘 모두 칠을 통해 연락이 닿았고 칠을 통해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신기한 만남들이었다. 공교롭게도 매번 뮤즈는 젊은 남자였던 관계로 흑자는 우리를 매 호 뮤즈를 찾아 배회하는 마녀 3인방처럼 생각할지도 모르나 그건 오해. 최근 노인 issue 에서는 2달여간 만난 서울의 여러 노인 분들이 우리의 뮤즈가 되어주셨다.

### Q 한국에서 인디 매거진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극단으로 달리는 한국의 메이저 문화에 반하는 다양성을 갖춘 비주류 문화의 한 귀퉁이를 위한 노력이다. 가져져 있고 쉽게 지나치는 것 혹은 가치에 비하여 평가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생산적 재발견 및 재생산이 우리 잡지가 독립된 형식을 취하려는 모토이다. 한국에서 독립된 자본으로 인디 매거진을 만든다는 것, 혹은 인디로 분류되는 문화 영역에 있는 것은 땅을 안 잡고 낮은 물위를 헤엄치려는 노력과도 같다. 물장구를 쳐도 수면이 상승되지 않으면 우리는 헤엄칠 수 없다. 땅 짚고 단시간 곧 잘 헤엄쳐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선수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꾸준히 노력하며 좋은 콘텐츠를 가진 비주류로 분류되는 여러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자신들 혹은 그런 문화들을 접하기 원하는 소수의 대중들에게 칠 자체가 일정 깊이의 물을 공급하여 그들 모두 다양한 자세로 헤엄치는 수영장이 되었으면 한다.

### Q. 당신을 매료시키는 잡지는?(왜?)

세 명 모두 이구동성 첫째로 NEST! 이제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지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욱 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주었던 잡지. 매 호마다 신선한 레이아웃과 은근히 파격적인 책의 형태와 디자인이 한 장 넘길 때 마다 눈을 설레게 했다. 지금도 칠을 만들면서 끈임 없이 NEST의 디자인에서 자극 받고 있다. 황당한 사진과 어이없는 내용 등으로 꾸준히 사랑 받는 Vice와 자유로운 폰트와 레이아웃 방식을 보여주는 Tokion. 이 밖의 세계각지의 친구들이 만들어 보내주는 크고 작은 출판물들에서 시각과 시야의 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얻는다.

### Q. 요즘 잡지의 경향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에디토리얼 & 디자인 측면에서)

국내의 잡지는 근 몇 년간 양적으로나 평균적인 편집이나 전체 레이아웃 측면에서는 발전 했다고 보지만 개별 잡지가 갖는 콘텐츠 + 디자인의 창조성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 꼭 magazine 이 아닌 zine 의 형태로도 다양한 출판물이 나왔으면 하고, 상업 잡지여도 그 잡지의 색깔을 담은 내용 혹은 비주얼로 광고 이외의 멋진 몇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싶다. 아니면 광고페이지가 엄청나게 멋있거나.

해외의 경우에 부러운 것은 상업잡지여도 꾸준히 본연의 색깔을 가지고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며 그 잡지 하나로 어떠한 부류의 문화를 대변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이다.

### Q. 귀하의 흥미로운 관심사는 무엇입니까?(잡지를 제외하고)

세 명의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영화와 패션과 영양보충, 그리고 세계곳곳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일,사건,사람에 대한 것이 큰 관심사이며 그런 곳에서 잡지의 테마에 대한 영감을 받기도 한다. 최근 칠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큐멘터리나 영상작업이라는 핑계로 많은 영화를 보고 유튜브로 이상한 영상들을 섭렵하느라 방장들을 설친다.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단체로 고속버스터미널의 우리의 의상실 ' 빈 프레임 ' 으로 가서 재미있는 옷들을 검은 봉지 한 자루씩 쇼핑하면 사기가 충전되고, 그 옷들에서 잡지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출발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맛있고 영양 많은 것은 언제나 초유의 관심사.

### Q. 귀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기획하고 있는 2가지의 주제에 대한 칠을 발간한 이후, 가까운 시일에 어떤 새로운 도시로 가서 각 도시 별 칠을 만들어 보고 싶다. 서울을 근거지로 한 우리들과 다른 로컬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칠의 변이판 혹은 도시시리즈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과 한국이 가진 에너지를 높이사지만 새로운 환경이 필요함도 느끼고 있다. 우선은 어느 시점까지의 꾸준한 발행이 목표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3명이 한 팀으로 칠을 만들며, 부수적인 여러 작업활동과 이벤트 등을 함께 꾸려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순풍이 불어주길 바랄 뿐. 각자의 일에서의 성취를 위한 개개인의 시간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어느 성공한 아이들 그룹의 미래계획처럼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개인 활동과 그룹활동의 병행 또한 우리의 계획이자 목표이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공이라는 것은 없지만 먼 훗날 먼지 깃고나 땅속에서 칠이 발굴되었을 때 우리가 지나 온 시대의 하나의 문화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기록되도록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